

자기소개서

저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혔지만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하며, 프로젝트 산업에 가장 적합한 개발자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트컴퓨터의 'Windows 고급개발자 양성과정'에 입학하여 5개월 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주말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C# & .NET 기반의 '업무관리 솔루션 제작 프로젝트', C/C++ 기반의 '일정관리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 WindowAPI 기반의 '컴퓨터 제도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 MFC 기반의 '직소퍼즐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개개의 완성도가 상용프로그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끈기, 의지를 가진다면 완성해내지 못할 프로젝트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프로젝트가 닥친다고 하여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직원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근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전 6년 동안 저는 인테리어 분야에서 전문가였습니다. 크고 작은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완이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 지금은 그 길 위에 서 있지만, 다른 한 분야의 전문가였던 지난 시간 속에서 저는 일(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저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저는 도전적이며 꾸준합니다.

저는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되기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정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묵묵히,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즐겨워합니다. 그런 태도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직업을 바꾸었고, 이렇게 프로그래머로 첫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왜 프로그래머인가?

사람들은 왜 인테리어를 그만두고 프로그래머를 하려는지 저에게 많이 묻곤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업무 생산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사용해보고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했었던 Excel, PowerPoint, AutoCAD, 3ds MAX, PhotoShop 외에 더 효율적인 데이터관리를 위해서 Access를, 데이터 및 프로세스 시각화를 위해 Visio, OmniGraffle을,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MS Project, OmniPlan을 사용했습니다. 또 일반 업무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AHK, PhraseExpress, Launchy를 사용하는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사용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제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이 커져서 결국 프로그래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이 프로그래머다"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운명과 팔자는 생각하기에 따라 종이 뒹집듯 쉽게 뒹집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태어난 '천성 프로그래머'입니다. 꼭 프로그래머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